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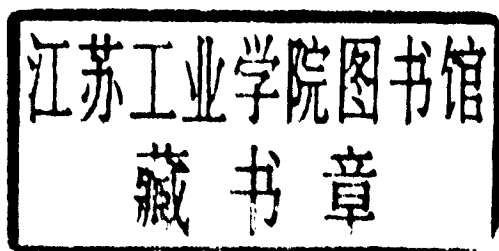
리화옥기자문집

파 이 린 기 록

민족출판사

리화옥기자문집

딱이린 기록



민족출판사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9년 11월 제1판 2009년 11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880mm×1230mm 1/32 전지: 15.375

자수: 420천자 값: 28.00원

ISBN 978-7-105-10433-8/I·2090(조221)

(편집실전화:58130534; 발행부전화:64211734)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蓝色记录: 朝鲜文/ 李花玉 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9. 11

ISBN 978-7-105-10433-8

I. 蓝… II. 李… III. 新闻—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5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201024号

责任编辑: 朴范吉

责任校对: 韩海燕 金海荣

出版发行: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地 址: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网 址: <http://www.mzcbs.com>

印 刷: 北京市艺辉印刷有限公司印刷

经 销: 各地新华书店经销

版 次: 2009年11月第1版 2009年11月北京第1次印刷

开 本: 880毫米×1230毫米 1/32 字数: 420千字

印 张: 15.375

定 价: 28.00元

ISBN 978-7-105-10433-8/ I · 2090(朝221)

该书若有印装质量问题, 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책을 떠나면서

1980년 12월, 결혼하여 딱 1년만에 휴가를 맡고 남편 보러 연길에 온 나는 어느날 우연하게 당시 연변일보사 김익현사장님을 만났다. 김익현사장님과는 일찍 내가 중앙인민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던 시기인 1978년에 함께 전국소수민족참관단 일원으로 함께 운남성과 사천성을 돌아보았고 국경연회에도 참석한 인연이 있었던것이다. 내가 연길에 전근해오고싶다는 의도를 내비치자 김사장님은 쾌히 응하면서 “연변일보사에 와 기사를 해라. 먼저 교정부에 와있어라.”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6년간의 아나운서생활을 종말짓고 연변일보사 《참고소식》 교정부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물론 아나운서는 누구나 다 하고싶으면 할수 있는 직업이 아닌 특수직업인만큼 아나운서직을 내놓기가 꽤 아쉬웠지만 남편과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한 것이다.

한어사범학교를 다녔고 교편도 잡았었고 또 아나운서시절 라디오방송 번역일군들의 일을 종종 도와주면서 조선문자에 익

숙해진 나에게 있어서 신문사 일은 별로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내옆에는 항상 글을 잘 다듬는 남편이 있었다. 그때 남편은 연변라디오방송국에서 명기자가 되겠다며 매일같이 취재를 다니었다. 그러는 남편은 나의 신문사일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교정부의 허술한 사무상을 마주하고 앉아서 “열고, 닫고(인용부호에 대한 교정원들의 특별한 호칭)”를 설새없이 되뇌이고 교정지를 들고 어둡시그레한 공장안을 드나들면서 교정일에 일정하게 익숙해지자 이번에는 시사부로 부서를 옮겼다. 잘 다듬어져 나오는 신화통신사의 원고를 번역하는것은 앞으로 기자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대로 되었다. 그동안에 나는 또 연변대학 통신학부를 다니면서 우리 말을 더욱 체계적으로 배웠고 사랑하는 딸 새별이도 낳았다.

그 시절 시사부에서는 교대로 밤대거리를 해야 했다. 캄캄한 밤에 혹시 나쁜 사람을 만날까 무서워 호주머니에 돌맹이를 넣고 출근한적도 있고 새날이 후딱 밝아오는 현상도 그때 처음 경험했다. 아직 돌이 안된 딸애를 등에 업고 나가서는 애를 사무상우에 눕혀놓고 일을 한 사람은 아마 《연변일보》사 력사에서 나 말고도 더 있을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연변일보》사에서 《길림신문》을 창간하면서부터는 《길림신문》 시사편집을 맡았다. 기획으로부터 번역, 교정, 심열,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만 하던 그때는 나에게 있어서 시련이었다.

내가 편집사업을 시작해서 기자로 활약한 시일은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나는 기자사업에 몹시 애착을 가졌었다. 별이 꿀을 채집하듯이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많은 뉴스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때로는 다섯곳, 여섯곳을 다니면서 취재한 뒤에야 기사 한건을 써내곤 했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기사는 신문에 실린 뒤 늘 우수기사로 평의받곤 했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 또다시 뛰곤 하던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추

역을 제일 많이 쌓은 시기라고 해야 할것 같다.

매편 글에서 나는 별로 화려한 수식어를 쓰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언어로 글을 엮기 좋아했다. 그래서인지 나의 글이 미끈하고 튜창하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다. 비록 내 글들이 주옥같은것이 아니고 하찮은 조약돌에 불과할지라도 나는 내 글을 사랑하였고 어느때부터인가 책으로 묶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중 일부를 추려서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책을 출판하면서 나는 기자시절을 이렇게 말하고싶다.

“그동안의 나날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이 책이 나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에게는 한가닥의 추억을 불러일으킬수 있고 나의 후배들에게는 다소나마 앞으로의 기자 사업에 참고로 될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다.

나를 낳아 키워주시면서 모진 고생을 하신 구천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와 홀로 계시는 어머니 그리고 생전에 나를 친딸처럼 사랑해주신 시어머님과 내가 글 한편 쓰면 열심히 읽어보고 고무해주고 묵묵히 밀어준 남편과 나의 생명의 전부이고 나에게 항상 힘이 되어준 딸에게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동료들에게, 친애하는 동창생들에게 이 책을 드린다.

나의 글을 정성들여 다듬어준 아우기자 김인선씨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아울러 이 책 출판에 도움을 주신 출판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는바이다.

리화옥

2009년 9월 9일 연길에서



책을 펴내면서 / 1

인물편

노래 더 잘 불러 고향에 보답하련다 / 3

“하는 일 있어야 자기 위치 찾는다” / 6

환자 제일, 질 제일, 봉사 제일 / 9

“찰떡 팔아 장가들고 집 사고” / 12

가수 주현미 “연변은 고향같다” / 14

“막상 와보니 자유로워요” / 16

보모로 사는 재미 / 19

영웅과 그의 부대를 찾아서 / 23

꿈안고 사는 맹인부부 / 29

“연변이 나를 키웠어요” / 31

혈육의 따뜻한 정 꽃으로 피여 / 36

따뜻한 마음으로 약재 보듬으며 / 40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 / 46

어린이 마음 살찌워주는 사랑의 공정사 / 50

한 농부가 일궈낸 “세계적인 걸작” / 53

자매들이 뽕뽕 뭉쳐 / 57

양몰이로 치부한 로과골 로인 / 60

- 김금선녀성의 속심의 말 / 64
- 무장사업은 나의 천직 / 67
- “연변사람들 따뜻해서 느낌 좋았어요” / 71
- 군공메달에는 그녀의 뒤통도 / 73
- 억척아줌마의 때밀이인생 / 78
- 제2인생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여성들 / 83

주부노트

- 내 손으로 만드는 특색음료 감예탕 / 87
- 입맛 확 돋구는 향긋한 봄나물 / 89
- 건강 위한 바른 영양조절법 / 91
- 통정, 연길에서 애용되고있는 원기약수 / 93
- “동북아”, 너의 매력은 뭐길래 / 98
- 집안에 봄 불러오기 / 106
- “늦둥이 보니 재미 좋소” / 108
- 원앙새 쌍쌍 백년가약 맺었네 / 111
- 올여름 싹다루 디자인 각양각색 / 115
- 천진에 우리 말 방송 메아리 / 117
- 청국장과 낫또 / 120
- 고기료리 싫으면 잡곡 드세요 / 123
- 운치롭고 황홀한 연길의 밤거리 / 125
- 문화생활의 향수—도자기 / 128
- 아스피린의 놀라운 발견 / 131
- 가을녀자로 거듭나세요 / 134
- “신토불이”표 김치양념 시장서 선보여 / 136
- 올가을 남새시장 풍성 / 138
- 현대부부실록 ABC / 140

- 륙품향꿀타래떡 인기 / 145
- 환절기 피부관리 보습이 중요 / 147
- 연길남새도매시장 일별 / 150

조사보고편

- 한족소학교 조선어학습열(붐) 인다 / 155
- 297만원 강제집행 왜 힘든가? / 158
- 다매체시대와 신문의 출로 / 166
- 우리는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있는가 / 174
- 생존을 위한 몸부림 / 179
- 도시로인 72% “자식들과 따로 살겠다” / 185
- 학생 세방살이 왜 늘어나나? / 189
- 음력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가 / 195

사회교육편

- 새 세대 위한 불꽃투혼 / 203
- 가정폭력 자녀까지 해친다 / 209
- 우리 주 혼인률 감소와 그 원인 / 211
- 우리 주 도시지명표지설치사업 순조롭게 진행 / 214
- 법은 무자비하다 / 217
- 자동차밀수집단 해멸기 / 225
- 겨울의 흉수-가스중독 / 231
- 농촌학교 폐교와 농민의 상실감 / 233
- “광주에 발을 붙였어요” / 235
- 참다운 인생 이제부터다 / 238
- 위생저가락 불합격문제 심각 / 244

- 선졸군의 역할 / 247
- 모진 어려움 이겨낸 리과장원 / 250
- 의지와 목표로 승부 / 254
- 심리자문 심리질환치료의 수단 / 259
- “가정파멸의 뼈아픔 이제야 알았다” / 261
- 조선족학교 어떻게 가야 하나? / 263
- 특수학교의 평범하지 않은 교원 / 266
- “조선족학교 미래, 질 향상에 달렸다” / 271
- 농촌교원대오 부름은 커도 알맹이 적어 / 274
- “조선족도시취업 이제부터 문제다” /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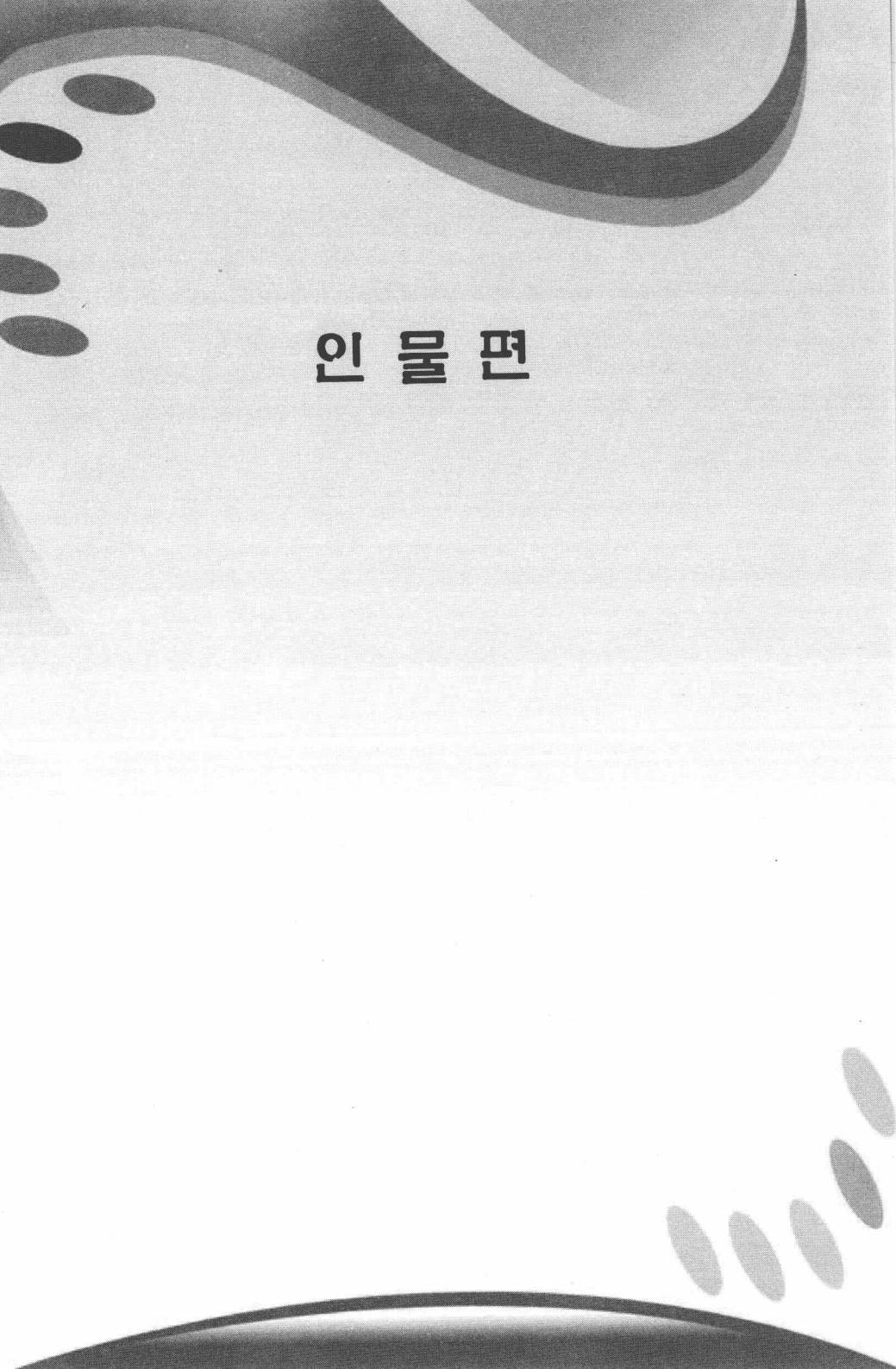
기행편

- “동방의 명주” 향항 / 283
- 천혜의 비경 장가계 / 289
- 지구촌 첫 일출의 나라 뉴질랜드 / 307
- 동방의 하와이 해남도 / 326
- 보배섬 대만을 찾아서 / 341
- 아름다운 녀신—제주 / 362
- 아름답고 수려한 남태평양의 나라 오스트랄리아 / 367

언론수필편

- 40년 키운 선인봉에 꽃 세송이 활짝 / 395
- 공부 못다한 설움 / 400
- “있을 때 잘해” / 403
- 혼자 사는 세상 아니다 / 405
- 사과 한알의 신기한 힘 / 407

- 밝고 즐겁게 살려면 / 409
- 나의 시아버님 / 411
- 부모의 나쁜 습관 자녀를 기로어로 / 415
- 택시도 위생 지켜야 / 417
- 관광여행사를 잘 선택해야 / 419
- 부부 서로 관심하고 배려하기 / 422
- 중년은 인생의 황금시절 / 424
- 인정이 메마르지 않는 사회 / 426
- 사랑이 무너지는 리유 / 428
- 칭찬에 린색하지 말자 / 430
- 어린이 레절교양 / 432
- 아이를 로인에게만 떠맡기지 말아야 / 434
- 래일은 화창할거야 / 436
- “두더지” / 439
-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데 / 441
- 아버지의 소원 / 443
- 농약냄새 풍기는 남새 / 446
- 복지시설 하루속히 완벽화되어야 / 448
- 아빠트에 살다보면 / 451
- 옷 색상과 도시미화 / 455
- 세상살이 지겹더라도 / 457
- 큰아버지 / 459
- 유독비닐주머니 사용 단속 요청 / 463
- 시어머님을 그리며 / 465
- 이웃지간의 리기심과 리타심 / 469
- 심리로화와 정서통제 / 472
- 공중장소에서의 녀성의 자세 / 474
- 디지털카메라로 떠오른 생각 / 476



인 물 면

노래 더 잘 불러 고향에 보답하련다

—가수 김용, 김자 부부를 만나

올해 연변TV의 음력설야회에는 진짜말을 타고 무대에 나서서 아담과 이브의 사랑노래를 관중들에게 선물하는 부부가수가 있다. 남편은 길림성가무극원에서 중국의 국가1급배우로 활약하고있는 김용(32살), 안해 역시 길림성가무극원에서 국가청년가수로 있는 김자(28살)이다.

“기차며 배, 승용차까지 무대에 오르는 이번의 연변음력설야회는 방대한 구상을 펼치여 새로운 느낌을 주고있습니다. 연출의 기발한 구상에 감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음력설야회를 높이 평가하면서 김용은 말탈줄 알고있지만 진짜말을 타고 무대에 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아직 정규화훈련을 거치지 않은 민속촌의 말이 무대에서 연무를 보고 놀랄 때 뜻밖의 일이라도 생길까봐 긴장하기도 하고 흥분도 되더라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길림 교하현 남대촌에서 7형제의 막둥이였던 김용은 어릴 적부터 음악에 남다른 소질을 갖추었으며 커서 꼭 가수가 되고 싶었다. 마을근처의 산에 작은 폭포가 있었는데 그가 노래 잘

부르는것을 알고는 마을사람들이 “네 노래소리가 저 폭포소리보다 더 높을 때는 노래를 잘할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늘 폭포옆에 가서 노래런습을 했다는 그는 12살때에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되다보니 동년의 그 아름다운 꿈을 좀처럼 실현할수 없었으며 16살에는 훈춘 영안광산에서 광산로동자로 일하면서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광산에서 얼마간 돈을 모으게 되자 맨 먼저 생각나는것이 음악공부였다. 연변예술학원의 정정문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3년간 공부하였고 졸업후에는 연변연극단에서 일하였다.

음악에서 한창 기능을 연마하고있던 1988년초에 가난뱅이인 그에게 봉황새가 날아들었다. 인물체격이 미끈하고 같은 연극단에서 일하는 마음씨 착한 김자와 달콤한 사랑을 나누면서 그는 세상의 황홀함을 느낄수 있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기 집 처지와는 달리 기술인, 교원의 가정에서 맏이로 반듯하게 자란 안해에게 고생을 시킨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있는 착한 김용가수는 안해자랑도 아끼지 않았다. 예술무대에서 평생 잉꼬부부로 살고싶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1989년도 9월에 장춘에 가 연수의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김용은 이팔리아창법으로, 김자는 통속가요로 각자의 기능을 닦았다. 길림성예술관 관장 묘홍신의 사심없는 가르침을 받아 김용은 훌륭한 남고음으로 발탁됨으로써 예술의 경지에 이를수 있었다.

“가는 곳마다 은인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할수 있었던것입니다.” 1992년도에 전국민간음악콩쿨에서 중국 문화부로부터 대상을 받은 김용은 길림성가무극원에 전근되였다. 이해에 그는 승승장구하여 특수기여상인 못별상을 수여받았으며 1995년에는 문화부에서 조직한 “할빈의 여름” 음악회에서 대상을, 1999년도에는 전국소수민족 “공작새컵” 1등상을 수여

받았다.

김용은 어머니를 몹시 숭배한다. 일찍 16남매를 낳아 7형제만 살린 어머니는 살아계시는 동안 갖은 고생을 다하셨다. 46살에 김용을 낳고 막둥이라 애지중지하면서도 어머니는 늘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또 사람은 겸손하고 근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이것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는 말을 동력으로 삼고 상해 주소연센터에서 더한층 런마를 하고있는중이라며 배움에는 경치가 없다고 했다.

무슨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가 하는 물음에 그는 옛날 어머니가 늘 부르던 우리 민족의 전통노래 《한 오백년》, 이팔리아 남고음의 주선률 《오늘밤 잠 이룰수 없네》, 주은래시보영화의 주제가 《당신은 이런분입니다》를 꼽았다. 김자는 성주풀이와 같은 타령을 잘 부른다고 한다.

김용네 부부는 함께 음악공부하고 공연에 참가하고 하다보니 연변에는 거의 10년은 오지 않은것 같으면서 고향에 와보니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기쁘고 놀랍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래를 더욱 힘차게 잘 불러 연변에서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나왔구나 하는 말을 들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김용이 말하자 김자가 “우리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준 고향 사람들이 고맙고 이제 연변의 노래를 더 많이 불러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김용과 김자는 매일 일정배치가 빈틈없이 짜여있었다. 그러다보니 애를 낳아 키울새도 없단다. 김용은 조금 편해지면 안해처럼 이쁜 귀여운 딸애를 낳고싶다고 했다.

2002년 2월 8일